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 www.kpil.org 2

공익인권법재단 공감(共感)은

2004년, 국내 최초의 전업적,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17년간 공감은 장애인, 폭력 피해 여성, 이주민과 난민,

아동, 홈리스, 성소수자, 청소노동자,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우리 사회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임료 걱정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친구 같은, 만만한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희망을 그리는 길,

변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감이 함께 하겠습니다.

Contents

2020 연간보고서

04 **인사말**

05 **여는 글**

06 **공감마당**

06 인권법캠프
08 자원활동
10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

11 **사진으로 보는 공감**

19 **공감활동**

20 여성인권
23 장애인권
28 빈곤/복지
32 이주민인권
36 취약노동
40 성소수자
44 공익법 일반
48 국제인권
53 공익법 교육/중개

56 **공감이 걸어온 길**

58 **공감 살림살이**

60 **2020 공감 목소리**

64 **함께하는 사람들**

64 기부회원
68 이사회
70 구성원

72 **공감 나눔밥상**

공감
소수자의 입장에 서서

인권
구체적 삶의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며

법
법으로 사회 변화를
일구고자 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기어이 봄은 옵니다.

전수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춘래불사춘. 이런 말이 반복되거나 말거나 봄은 여지없이 옵니다. 사실, 봄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그러할 뿐 봄이 봄답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피천득 선생은 1월이면 벌써 봄이라 했으니, 입춘 우수 다 지나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지금은 엄연한 봄입니다. 이 엄연한 봄은 며칠만 지나면 확연한 봄이 되겠지요.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춥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끔의 훈풍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기부회원님의 후원도 그렇습니다. 예전의 1만원 후원이 3만원처럼 고맙고 3만원 후원이 5만원처럼 고맙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힘들고 공감 기부회원님께서도 예외일 리 없음을 미루어 알기 때문입니다.

공감은 올해 18년 차에 들어갑니다. 벌써 18년, 아니 겨우 18년. 올 한 해도 지난해와 같이, 아니 지나온 열일곱 해와 같이 초심 그대로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후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백세 아니 연년세세토록 무궁무진하게 주욱 갈 것입니다, 기부회원님이 든든하게 머물러 주시기만 하면. 그러나 한편 안주하지 않고, 일신 또 일신하겠습니다. 면면을 새롭게 하고 운영과 활동의 체계를 다듬어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진보하겠습니다, 기부회원님이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기만 하면.

감히 공감은, 이른 봄 산기슭의 산수유와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산수유는 다만 어른거리는 꽃의 그림자로서 피어난다. 그러나 이 그림자 속에는 빛이 가득하다. 빛은 이 그림자 속에 오글오글 모여서 들끓는다. 산수유는 존재로서의 중량감이 전혀 없다. 꽃송이는 보이지 않고, 꽃의 어렴풋한 기운만 파스텔처럼 산야에 번져 있다. 그래서 산수유는 꽃이 아니라 나무가 꾸는 꿈처럼 보인다" (김훈, '자전거여행').

스스로를 내세우거나 화려한 자태로 존재감을 뽐내지는 않지만 다른 꽃들이 피어나기 전에 온몸으로 봄을 알리는,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아무리 추워도 기어이 봄은 오는 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존재, 그런 공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기부회원님 모두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공감을 후원해주신
기부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무총장

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공감은 그동안 해왔던 활동을 변함없이 지속하기도 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하여 다방면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연간보고서에는 공감의 2020년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공감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된 시기에 공동대책위원회 피해자 지원단에 참여하여 피해자 지원을 하였고,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 결합하여 대리인단 활동을 이어나가는 등 긴급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을 기반으로 한 신속한 대응활동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중요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위기 상황에 놓은 노동자들을 위하여 직장갑질 119 코로나 대책반에 참여하여 대규모 실태조사,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정책 검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결과, 정부가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마련하였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 장애인 당사자를 대리하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장장애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당사자를 대리하여 1심에서 승소를 하였고, 조건부 수급자 사망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수 년 동안의 긴 싸움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방식의 변화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공감 교육·중개의 주요사업인 인권법캠프, 자원활동가 및 로스쿨 실무수습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하여 한일공익변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아시아 차원의 국제적인 교류를 더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공감을 후원해주신 기부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도 변함없는 활동 이어나가겠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공감 인권법캠프가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 2월, 1회만 진행되었습니다.
72명이 모여
인권을 주제로 한 열띤 토론과 강연을 이어가며
서로의 생각을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법조인으로의 꿈을 꾸는 참가자들에게
함께했던 시간이 꿈을 향한 작은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권법캠프

일 시 : 2020년 02월 06일
시 간 : 10:00 ~ 22:00

회 의 실

인권법 캠프

공감마당 — 소통과 참여

공감 31기 자원활동가

김 기 백
김 기 만
고 지 원
안 홍 범
이 재 순
이 성 용
임 서 우
정 지 윤
허 재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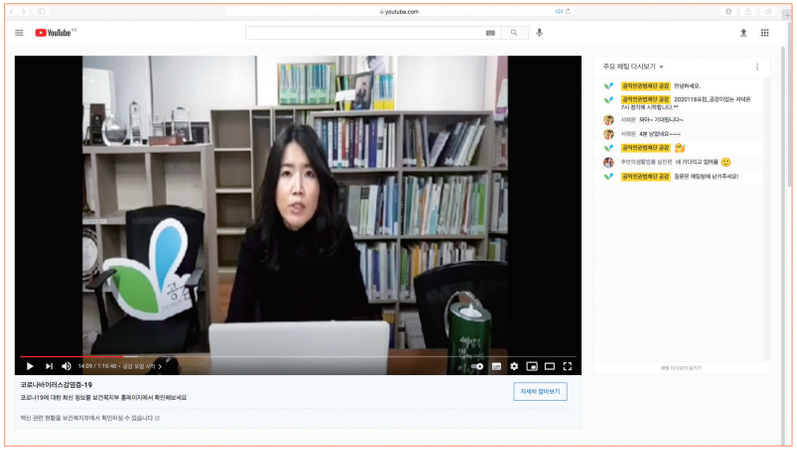
자원활동

공감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의
자원활동가를 모집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활동가들은
국내외 법률 문헌연구조사 등을 중심으로
공감 구성원들과 함께
공감의 활동을 채워갑니다.
짧지 않은 5개월의 시간,
자원활동가들이 나누어준 시간과 열정은
공감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됩니다.

공감 32기 자원활동가

김 예 진　김 평 건　이 혜 나
김 주 현　우 경 주　임 현 동
김 채 연　이 하 림　최 서 연

공감마당 — 소통과 참여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

2020년,
모임과 만남이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며
공감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공감 포럼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된 온라인 포럼은
윤지영 변호사의
“코로나19 시대, 여성노동자의 삶”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시도는
공간을 초월한 비대면 강좌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강연장에서 직접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온라인을 통한 공감포럼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공감마당 — 소통과 참여

[코로나19 대응] 청도대남병원 정신장애질환인 긴급구제기자회견

[코로나19 대응] 노숙인시설 인권위원회 긴급구제청구

20

사진으로 보는 공감

20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공변한마당

공익변호사자립지원협약식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

20 사진으로 보는 공감 20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동대문구 퀴어여성체육대회 대관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면담조서 조작 기자회견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피켓팅

동의 없는 동의 입원으로 2년간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된 지적장애인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직장갑질119 법률지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특별예산 편성 요구 기자회견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1인시위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사망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장애인활동보조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위한 법률지원

20
사진으로 보는 공감
20

기초법 제정을 위한 활동

한국마사회 감사촉구 기자회견

텔레그램 n번방 대응 법률지원

한일공익변호사 온라인세미나

2020 공감 활동

여성인권

장애인권

빈곤/복지

이주민인권

취약노동

성소수자

공익법 일반

국제인권

공익법 교육/중개

2020 공감활동

01

여성 인권

디지털 성폭력 범죄 대응

국제결혼중개업 온라인 불법광고 규제 모색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공감은 텔레그램성착취사건 공동대책위 피해자 지원단으로 피해자 상담, 피해자변호사로서 형사절차 지원, 합의 조력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가해자 중심의 양형판단과 실무관행에 문제제기 하기 위한 판례분석과 피해자의 관점에서 양형기준 재편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토론회 등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는 불법촬영 피해와 더불어 유포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동성 간 불법촬영도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범죄피해신고시 수사에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 조력하였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 대응

- 피해자 법률지원 및 제도 개선 활동

2020. 1~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지원단
-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자문위원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피해자 대리인단 활동
  -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변경 및 개명절차 지원
- 비공개촬영회 비동의 유포 피해자 법률 지원
- 동성 간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 피해자 법률지원
- 이주여성노동자 사업장 내 불법촬영 피해자 형사절차 지원

2020. 9~11.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성범죄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서 작성, 제출

2020. 10.~
- 토론회 '양형부당을 말하다 – 피해자관점에서 본 양형기준' 발표
-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여성긴급전화 토론회 등 발표
- 충북성문화센터, 국방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등 상담가들 대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주제 강의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광고는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한 규제가 이뤄집니다. 사거리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현수막을 보기 힘들게 된 것은 이주여성인권단체들의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문제제기 덕분입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불법광고가 이제는 랜선을 타고 동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감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함께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불법적 온라인광고(광고사실 미표시, 미등록업체 광고, 여성 혐오나 성상품화, 다른 국가나 민족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혐오표현의 문제점과 현행법에 따른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감은 대안적 규제방법 연구 및 모니터링단 법률교육 등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 온라인 불법광고 규제 모색

- 결혼중개업법 근거한 규제의 한계 및 모니터링 필요성 강조

2020. 4. 국제결혼중개업 온라인 불법광고 실태 조사 및 사업 계획

2020. 8. 모니터링단 법률 교육 및 결혼이주여성 심층인터뷰
모니터링 개시, 모니터링 결과 분석

2020. 10. 실태 및 문제점, 제언 보고회 '혐오를 낳는 차별적 광고 이제 그만!'

2020 공감활동

02

장애 인권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발의

장애인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수사 및
처벌 개선방안 마련 프로젝트 '울력과 품앗이'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

광주에 거주하는 50대 후반인 다발성경화증을 앓고 있는 환자이자 뇌병변장애인 당사자는 2010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요양서비스를 받아오다 뒤늦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알게 되어 구청에 자신이 받아오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변경해 달라는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제3호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하고,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데, 신청인은 이미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에 사회서비스변경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법조항은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판단되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 위헌제청사건에 대하여 2020년 6월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는 급여량 편차가 크고, 사회활동 지원 여부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장애인 중에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 (2017헌가22 사건)

2016. 9. 6. 법원에 사회서비스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제기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3137)

2016. 9.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제3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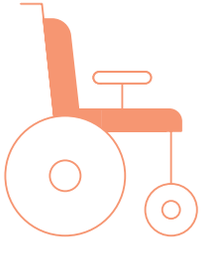
2017. 7. 광주지방법원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법률심판제청

2020. 6. 11.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2020. 12. 23.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장애인은 오랫동안 무능력자라는 편견 아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 등에 수용되어 인권침해를 당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제한당하였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시설이나 정신병원에서 지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는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이어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하여 이들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여야 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충분히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탈시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장애인단체들과 공익변호사들이 탈시설지원법제정 TF를 꾸려 법안 작업을 하였고,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도 탈시설지원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국회 통과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발의

2017. 9.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TF 출범

2018. 3.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공청회

2019. 7. 8. 20대 국회 윤소하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0. 11. 5. 국회 토론회 '탈시설의 법적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2020. 12. 10. 21대 국회 최혜영 의원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14년 '염전노예사건' 이후에도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은 '현대판 노예' 또는 '인신매매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여전히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대도시나 사찰, 원양어선에서 계속해서 지적장애인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가로채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은 자신의 권리구제를 스스로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장애인의 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여 장애인 노동착취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울력과 품앗이'는 '힘을 합한다' 혹은 '노동을 나눈다'는 의미로서 '협동'의 우리말식 표현입니다. 미풍양속인 '울력과 품앗이'가 장애인노동력 착취를 정당화시키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용어로 수사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 법제의 문제점과 국제인권규약 및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장애인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수사 및 처벌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애인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수사 및 처벌 개선방안 마련 프로젝트 '울력과 품앗이'

2020. 4.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팀 출범
2020. 4.~11.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팀 회의
2020. 7. 한국-미국 장애인 권리옹호제도 비교분석 온라인 간담회
2020. 8. 한국-미국 인신매매 대응 비교분석 온라인 간담회
2020. 11. 울력과 품앗이 보고서 발간
2021. 2. 2. 장애인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수사 및 처벌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신장장애를 가진 버스기사가 혈액투석을 받는다는 이유로 버스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원고는 회사에서 요구한 건강검진을 마쳤으며 버스 운전 업무 수행을 위한 1종 운전면허, 자격시험, 적격검사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해고 이후에도 일용직 관광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장장애 여부를 알게 되자 '혈액 투석하시죠? 장애인이시죠? 그만두세요.'라며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평소 원고의 근무나 배차계획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채용 과정에서 장애 선별, 의학적 질문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회사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혈액투석을 위한 배차시간 조정 등)가 있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회사의 해고(채용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장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에 대한 고용상 차별을 확인한 진일보한 판결을 환영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공감은 항소심에서도 원고와 함께 장애인고용차별에 맞서겠습니다.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

2020. 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 제기
2021. 1. 14. 판결 선고 (원고승소)
2021.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제기, 항소심 진행 중

2020 공감활동

03

빈곤 복지

홈리스를 위한 정책연구 및 법률지원

‘자동차 고시’로 인한 사회보장급여 기각결정취소 소송

‘나, 다니엘블레이크 소송’ 승소 확정

주거가 없는 홈리스들에게 코로나19 상황은 힘든 시기였습니다. 거리노숙인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방역을 이유로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퇴거조치 되거나, 주로 민간기관의 자선에 의존했던 무료급식소들이 폐쇄되면서 급식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가 급식소를 이용하려는 홈리스들에게 전자회원증을 도입하겠다고 하였다가 거센 항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공감은 홈리스행동 및 반빈곤운동 단체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 저녁 서울역 부근 거리노숙인을 위한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홈리스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숙인진료시설과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여, 노숙인을 차별하는 의료급여제도 및 노숙인 지정병원제도에 대하여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과정에서 거주등록이 말소되거나 실종선고에 의해서 사망처리가 된 거리노숙인에 대한 법률지원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에 제정된 노숙인복지법을 시설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아닌 홈리스의 권리 보장차원의 지원체계로 재편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홈리스를 위한 정책연구 및 법률지원

2019. 5.~	매주 금요일 서울역 홈리스 인권지킴이 활동
2020. 3. 9.	노숙인자활시설 출입금지 인권위 긴급구제신청
2020. 5.~	홈리스정책 재편을 위한 기초 연구
2020. 10. 26.	거리노숙인 실종선고 취소 심판청구
2020. 11.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홈리스 의료공백 대책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
2020. 12.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
2021. 1. 14.	공익근무요원 홈리스 폭행 사건 고소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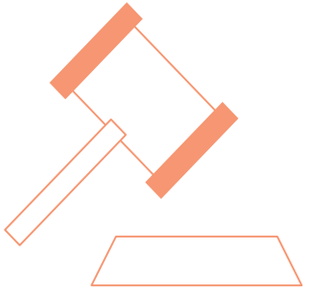
A씨는 운영하던 노래방을 휴·폐업을 하게 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2년 동안 소득이 전혀 없었지만, 연식이 10년도 넘는 140만 원 가량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급여신청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월 100% 소득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A씨는 급여신청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벌금 미납금으로 차가 압류되어 처분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장 생계가 급한 상황이니, 관련 지자체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통해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로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은 관계법령상 급여신청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처분하지도 못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공감은 A씨의 사건 지원신청을 접수하여, A씨의 사회보장급여 기각결정취소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만연히 국민정서를 이유로 자동차에 대하여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고시'로 인하여 비수급 빈곤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감은 이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동차 고시'로 인한 사회보장급여 기각결정취소 소송

2019. 10. 30. 사회보장급여 기각결정취소 소제기
2020. 4. 1. 소송구조로 사건 수임하여 소 계속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을 받던 조건부 수급자 사망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지난 2019년 12월에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 평가가 위법하므로 국민연금공단과 수원시의 손해배상책임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공감은 공동 대리인단과 함께 항소심도 수임하여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의 상고포기로 사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비록 故 최인기님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이 될 수 없지만, 수급자들에게 무리한 조건을 부과하여 강제근로로 내모는 조건부 수급자제도로 인한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나, 다니엘블레이크 소송' 승소 확정



2014.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2017. 8. 조건부 수급자 고 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제기
2019. 12. 1심 법원, 국가배상 일부 인정
2020. 10. 29. 2심 법원, 수원시, 국민연금공단 항소 기각(확정)

2020 공감활동

04

이주민 인권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주노동자에게 침묵 강요하는 재입국 특례 제도에 대한 인권위 진정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활동

우리가 흔히 이주노동자라 부르는 사람들, 법적으로는 E-9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정한 특별한 사유를 입증해야만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농업, 영세 제조업, 축산업처럼 일손을 구하기 힘든 사업주들을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사업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고용허가제법')이 바로 그 법입니다. 그러나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강제노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일을 그만둘 권리는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이에 오랫동안 이주노동자들에게 족쇄로 작용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규정과 고용노동부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019. 7.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 모임 구성
2019. 7.~	헌법소원 추진 모임 회의 및 헌법소원 준비
2020. 3.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대리인단 구성
2020. 3.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020. 5.	심판 회부

사업장 변경 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4년 10개월을 계속 일한 이주노동자는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사용자의 재초청을 통해 간이한 절차를 거쳐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언뜻 성실하게 일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특례 같지만 다시 보면 숙련된 노동자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사용자를 위한 특례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사용자의 부당대우를 참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인천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여성이 작업장 내 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를 발견, 신고합니다. 알고 보니 설치자는 사장이었고 범행은 장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구속도 안 된 사장이 출근하는 일터로 피해자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4년 8개월 동안 사장의 성희롱과 성추행을 참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재입국 특례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사장의 약속대로 한국에서 다시 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용자의 성범죄 신고로 피해자인 이주노동자의 재입국 기회는 근속기간 만기 2개월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공감은 이주민인권단체들과 함께 재입국특례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관련법 개정 요구 등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침묵 강요하는 재입국 특례 제도에 대한 인권위 진정

2020. 3. 사업장 내 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 발견한 이주노동자 경찰 신고

2020. 4.~ 사용자기 범인임을 확인
사업자에 의한 추가 불법촬영피해 및 상습 강제추행, 성희롱 피해 사실 확인
이주민인권단체들과 공동대응, 서울이주여성인권상담센터와 토론회 개최
형사 고소 대리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2020. 5. 피해자 재입국 기대할 수 없는 문제 지적,
재입국특례제도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20. 6 외교부, 여가부, 국회의원실 등 접촉하여 관련 법 개정 필요성 및 피해자 구제 가능성 모색, 언론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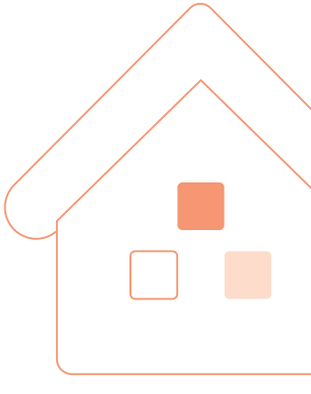
2020. 10. 노동위원회 성희롱 행위 인정, 과태료 부과 결정
피고인 추가 불법촬영 범행 확인, 강제추행 혐의 인정되어 기소, 구속결정

2021. 2. 피해자 범죄피해자 지원 및 생활지원 모색, 형사합의 조력
유죄 징역형 선고, 항소심 지원 중

영하 18도에 이르는 강추위로 인해 경기도 일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2020년 12월 말, 캄보디아 출신의 한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지내던 숙소는 농장 한 가운데 임시적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 안 간이 건물로 난방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숙식환경이라도, 아무리 살인적인 근로조건이라도, 고인을 비롯해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의 승인 없이는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합니다.

고인의 사망 직후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공감도 대책위원회의 대리인단에 속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건축법,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비닐하우스 숙소와 관련하여 고용주를 노동부와 경찰에 각각 고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기숙사에서 고인과 함께 숙식하며 일했던 동료 이주노동자들을 고용주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청하는 긴급 구제신청도 하였습니다. 고용허가제의 허점들이 낳은 비극. 다시는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위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활동



2020. 12. 20. 故속헹님 사망

2020. 12. 25.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대책위원회 발족

2020. 12. 30. 노동부, 경찰 고발장 접수

2021. 1.~ 기자회견 등 대책위원회 대리인단 활동 지속

2020 공감활동

05

취약 노동

청주방송 故 이재학PD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코로나19 대응 활동

故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청주방송에서 14년 넘게 PD로 일을 하다가 비정규직 동료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故 이재학PD입니다. 이재학PD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했지만 청주지방법원은 이재학PD가 청주방송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직후 이재학PD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재학PD의 억울함을 풀고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공감은 '청주방송 故 이재학PD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수개월 간 진상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재학PD가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사실, 1심 소송 과정에서 회사가 위증 등의 불법을 저지른 사실, 청주방송 안에 비정규직이 다수이며 처우가 매우 열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회사의 책임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청주방송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진상조사위원회 차원에서 청주방송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청주방송 故 이재학PD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2020. 2. 대책위원회 및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2020. 3.~6. 진상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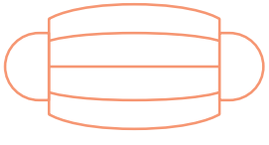
2020. 6. 23. 진상조사 결과 발표

2020. 7. 28. 청주방송, 유족, 대책위원회, 언론노조 간 합의 타결

2020. 10. 14. 1차 이행 점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노동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콜센터나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시달렸습니다. 공항, 학원, 식당, 운동시설, 숙박시설, 여행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다수가 무급으로 휴직에 들어가거나 해고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들의 일자리를 공격했습니다. 불안정하고 취약한 노동자일수록 정부의 지원정책이 절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공감은 직장갑질119에서 만든 코로나 대책반에 참여하여 위기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가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조사하여 언론, 토론회 등을 통해 알렸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마련하였고,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공감은 대응 활동을 벌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활동



2020. 2.~	직장갑질119 코로나 대책반 참여
2020. 4.~	직장갑질119 코로나19 관련 직장인 실태조사 진행
2020. 3.	코로나19 관련 특수고용노동자 정책 검토 의견서 작성
2020. 6.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노동 관련 8대 분야 정책 과제 보고서 작성
2020. 7.	서울대인권센터, 코로나19와 인권 학술대회 노동 분야 발제
2020. 12.	불평등연구회, 여성노동포럼 주최, 코로나19 이후 여성노동자들의 현실 발표

부산경남경마장이 개장된 이래 기수와 말 관리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곱 번 반복되었습니다. 故 문중원 기수는 유서를 통해 마사 대부 비리 등을 폭로했습니다. 故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됐고 공감은 '진상조사팀'에서 한국마사회의 권한, 경마종사자와의 불공정한 권력관계 및 현황 등을 분석하여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진상조사를 통해 기수와 말관리사의 높은 산재율과 열악한 처우 및 경마 비리 등을 밝히고, 관계인들을 고소·고발하였습니다. 또한 마사회의 권한 분산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힘을 모은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기수노조의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졌고, 마사회와 유가족, 노조가 후속대책 등을 포함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에도 공감은 시민대책위원회 활동의 연장선에서 마사회 적폐 청산을 위한 마사회법 개정작업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故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활동

2019. 12.	시민대책위원회 구성
2020. 1.~2.	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회
2020. 3.	한국마사회, 유족, 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간 합의 타결
2020. 5. 21.	부산경남경마 기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2020. 4.~	마사회법 개정 검토

2020 공감활동

06

성소수자

지역 시설관리공단의 성소수자 행사 대관 차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성소수자난민에 대한 지속적 법률 지원과 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로 동성배우자 피부양자 소송 제기

성소수자 차별이나 혐오에 대한 법적 책임, 과연 인정될 수 있을까요? 한 성소수자 단체가 체육대회개최를 위해 체육관 대관신청 후 지역시설관리공단의 대관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사 홍보가 한 창이던 며칠 후 갑자기 체육관 보수공사가 잡혔다는 불명확한 사유로 대관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대관 취소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소수자 행사 취소가 차별인지를 문의하기도 하고, 항의하는 단체 담당자에게 주민 민원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힘을 얻습니다.

차별금지의무를 적극 실천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소수자 혐오에 힘을 실어 준 것이라는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인권위는 차별시정권고와 담당 공무원의 재발방지교육수강을 지시했습니다.

공적 공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차별을 정당화하고 재생산합니다. 이 때문에 국가나 공공기관, 공무원의 차별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감은 '희망을만드는법'과 함께 시설관리공단의 성소수자 행사 대관 차별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입니다.

지역 시설관리공단의 성소수자 행사 대관 차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차별은 불법행위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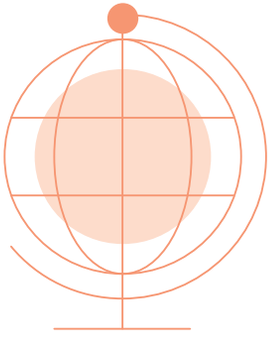
2017. 9. '퀴어여성네트워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체육관 대관 신청 후 민원 이유로 대관 취소

2020. 1. 동대문구, 동대문구 시설관리 공단, 담당 공무원 상대로 소제기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공감의 문을 두드리는 성소수자 난민이 많아졌습니다. 일단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지만 성소수자로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어떤 비자로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 19로 인해 내수경제가 어려워지며 (재)취업이 어려워지고, 비자 만료일이 다가와도 하늘길이 막혀 다른 나라로 가지 못하니 그제야 수소문 끝에 난민신청을 하게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공감은 수백 건에 이르는 난민불인정결정처분 취소소송결정문을 분석하고, 해외 판례를 리서치하며 소수자난민소송과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난민심사 주체인 법무부 대상으로 성소수자난민 관련 자문을 진행하였으며, 심사 가이드라인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난민에 대한 지속적 법률 지원과 자문



한국에서 동성 커플들은 많은 제도적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해, 사실혼 배우자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던 동성 부부가, 언론보도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등록을 취소당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한국의 가족상의 변화에 맞추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넓혀왔습니다. 특히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등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실질적 생활관계를 존중하여 그 보험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이성 커플의 경우, 간단한 증빙서류로 사실혼 관계를 소명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 커플의 경우에는, 동성 간 결혼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도적 권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공감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동성 커플들도 사회보장제도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가족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소송을 통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들이 동성 부부들에게도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로 동성배우자 피부양자 소송 제기

2020. 2. 16. 사실혼 배우자로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취득
2020. 10. 23. 한겨레21 보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등록 취소
2020. 11. 13.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부과처분
2021. 2. 18.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

2020 공감활동

07

공익법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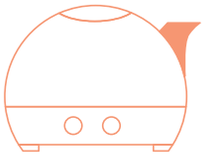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참사 집중 대응

시민사회 제도개선활동

공감의 코로나19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

공감은 2018년부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에 참여하여 4.16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상규명, 피해지원, 재발방지 등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서는 침몰원인을 둘러싼 쟁점들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분석하고자 하였고 사후대응과 관련해서도 각각의 기관과 개인들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국정원의 피해가족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 사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세월호 관련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피해지원상황의 점검과 더불어 관련 피해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적극 결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피해자단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감은 뼈아픈 참사의 경험이 낭비되지 않도록 꾸준히 활동해나가고자 합니다.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참사 집중 대응



2020. 1.~12. 사참위 전원위원회,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소위원회. 지원소위원회 회의 및 관련 활동

2020. 2.~4. 국정원 '민간인 사찰' 수사요청 준비,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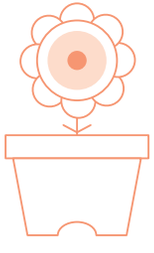
2020. 10.~12. 국정원의 4.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관련 국정원 관계자 면담, 실지조사

2020. 5.~9.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사참위안 마련, 피해자단체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환경부, 국회 등 관계자 면담, 협의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이 아닌 제3의 섹터(NGO 또는 NPO)로서, 권력을 견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공익단체들이 정부와 시장을 상대로 제 목소리를 내고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들을 걷어내야 하며, 공익단체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감은 2020년에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약칭 '기부금품법')의 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공익위원회를 설립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익성 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익법인법') 개정논의에도 함께 하여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제도개선활동



2020. 7. 공감 염형국 변호사 국무총리실 산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2020. 8.~ 시민사회 제도개선 소위원회 활동
2020. 10.~ 시민사회발전기본계획 연구 자문
2020. 11.~ 국회 기부금품법 개정안 발의 준비
2021. 1. 한국 시민사회 법제도 쟁점과 과제 연구 자문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상황에서는 집회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에도 많은 제약이 가해지지만 기존의 취약한 집단은 더 극단으로 몰리고, 사회적 기반이 불안전했던 집단들도 모두 취약한 상태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2020년 공감의 거의 모든 활동은 영역을 불문하고 코로나19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감은 그동안 쌓아온 재난과 인권 영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협 코로나19대책법률지원TF의 '코로나19 법률상담 Q&A',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의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공동집필에 참여하여 당장에 필요한 법률 콘텐츠를 제공하고 코로나19 관련 인권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감염과 코호트 조치의 위험에 처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정신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하는 등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노숙인시설 출입금지를 당한 홈리스들을 위하여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을 하는 등 홈리스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공감의 코로나19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

2020. 3.~4. 대한변협 코로나19대책법률지원TF 활동, '코로나19 법률상담 Q&A' 공동집필
2020. 3.~12.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활동,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공동집필
2020. 2. 정신장애 폐쇄병동 코로나 19 확진환자에 대한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2020. 2. 코로나 19 방역을 이유로 노숙인자활시설 출입금지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홈리스 의료공백, 급식지원 등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2020 공감활동

08

국제 인권

아시아 공익인권변호사 공동활동 조직 추진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적용 기획활동

무국적 인정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보고서 발간

아동성착취영상물 대응 활동

인권문제와 관련된 아시아 변호사들과의 교류와 공동활동은 공감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이주민, 난민, 기업과 인권, 노동, 장애 등 그 분야도 다양했습니다. 공감은 그동안 일회성 행사에서의 만남이나 그때그때 체계적이지 않게 이루어졌던 교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아시아 차원의 공익인권변호사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시아 프로보노 컨퍼런스에서 '아시아 변협 인권네트워크' 관련 세션을 구성하여 아시아 내 핵심적인 공익인권변호사들과 진지한 논의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가장 많은 교류가 있어 왔던 일본변호사들과는 노동, 이주 등 구체적인 활동의 주제와 일본에서의 공익변호사단체의 설립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함께 정보와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라는 큰 장해물에도 불구하고 공감은 함께 일하는 국제적인 인권네트워크 구성과 운영에 꾸준히 힘을 모아나가고자 합니다.

아시아 공익인권변호사 공동활동 조직 추진

2020. 4. 3. 아시아 프로보노 컨퍼런스 준비회의

2020. 8.~9. 아시아 프로보노 컨퍼런스 세션 중 '아시아 변협 인권네트워크' 관련 세션 기획, 제안, 패널 구성, 준비회의

2020. 9. 26. 아시아 프로보노 컨퍼런스 '아시아 변협 인권네트워크 기초 확립을 위한 변협들의 핵심주체 조직화' 세션 사회

2020. 4.~10. 한국국제교류대단 한일시민 100명 미래대화 한일공동 소프로젝트 '한일시민이 잇는 동아시아의 인권' 공동기획, 준비, 진행

2020. 5. 15. 한일공익변호사 공동주최 '코로나19와 인권: 한일 공익변호사들이 말한다' 세미나 '코로나19와 노동' 발표

2020. 8. 27. 한일공익변호사 공동주최 '공익변호사' 세미나

2020. 9. 10. 한일공익변호사 공동주최 '공익변호사' 간담회 발표

2020. 10. 24. 한일공익변호사 공동주최 '코로나19와 이주인권' 세미나

공감은 2019년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적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원에서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에 관한 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기획,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국회에 초점을 맞춰 국가인권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국가인권위, 대한변협, 인권법학회, 한국인권학회, 인권법학회, 국제인권네트워크,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공동주최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콘퍼런스를 진행하였고, 그동안의 연구조사와 활동경험에 기초하여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공감은 앞으로도 많은 경우 인권보호의 수준, 인권적 감수성과 상상력 등이 한국의 법제보다 앞서 있는 국제인권규범을 통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적용 기획활동
- 국회

2019. 10. 국회의 국제인권기준 국내적용 관련 연구조사 국가인권위에 제안

2020. 2. 국회의 국제인권기준 국내적용 관련 연구조사 국가인권위에 자문

2020. 6. 4. 국가인권위 주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위한 입법부 공동 콘퍼런스 추진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2020. 9.~11. 국가인권위, 대한변협, 인권법학회, 한국인권학회, 인권법학회, 국제인권네트워크,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콘퍼런스 공동주최 협의

2020. 12. 18.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콘퍼런스
- 입법부를 중심으로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발표

세상 어느 국가에서도 국민으로서 간주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으니 그 수조차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바로 무국적자입니다. 이미 공감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무국적자를 대리하여 때로는 체류자격을, 때로는 관련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자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년이 걸리지만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던 과정들을 겪으며, 한국이 독자적인 무국적자 인정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1954년 협약'을 가입한 이후 50여년이 흘렀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공감은 한국에 적합한 무국적자 인정절차를 설계하고, 무국적자로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협약에 따른 권리와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연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무국적자지위협약, 국제인권법, 외국의 모범사례, 유엔난민기구 편람, 한국의 입법현황을 종합하여 무국적인정절차를 설계하여 2021년 마침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무국적 인정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보고서 발간

2017. 유엔난민기구 지원 연구 개시

2018.~2020. 비교법 연구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1. 무국적 인정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보고서 발간 예정

2019년 10월,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등 32개국 수사기관의 국제 공조수사로 회원이 128만 여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와 더불어 이용자의 극히 일부가 검거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성착취영상물 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것이 무려 25만 건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였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사이트의 운영자, 그리고 검거된 이용자 310명 중 200여 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해 우리 사법부가 내린 솜방망이 처벌은 동일한 사건으로 검거된 미국이나 영국 국민에 대한 해당 국가 사법부의 판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공감은 아동성착취영상물에 대한 해외의 입법례와 양형기준 등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 제·개정에 힘을 모으는 한 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또한, 성착취영상물의 촬영은 물론이고 소지와 유통 모두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폭력 교육안 개발에 연구진으로 참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활동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감은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밝히려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아동성착취영상물 대응 활동

2019. 10.~	민변 아동위·여성위 공동 아동성착취영상 대응 TF 활동
2019. 10.	아동성착취영상 대응 긴급국회토론회 발제
2020. 1.	민변 여성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TF
2020. 4.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아동성착취 외국판례 발표
2020. 4.	UN 재단 Girl Up 중국지부 토론회 발제
2020. 8.~2021. 1.	교육부 발주로 양성평등원이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 개정 법안을 반영한 초·중등 교육안" 개발·집필진 참여
2020. 10.	성착취와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용어 가이드라인 ("룩셈부르크 가이드라인") 한국어 번역을 위한 워킹그룹

2020 공감활동

09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공변 라운드테이블, 공변 잇수다, 공변 한마당

공감은 공익·인권을 위한 직접 법률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공익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공동으로 매년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은 공익단체에서 일하고자 하는 공익변호사들의 신청을 받아 지원자를 선정하고 공익단체에 이들에 대한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기를 시작으로 하여 2020년에 7기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7기에 지원을 받은 이들은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나동환 변호사, 전남·광주 지역에서 공익·인권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김민아 변호사입니다. 두 변호사에게 2020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2년에 걸쳐 인건비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문을 합니다.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2020. 1. 7기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공고

2020. 4. 7기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면접 전형 및 선발

2020. 5.~ 나동환 변호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민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자립지원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은 전업 공익변호사로 활동해 온 선배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비법조인들이 공익변호사로서의 구체적인 활동모습과 전망을 그려보는 장입니다. 공감은 2011년 5월 첫 행사를 시작한 이래 매년 빠짐없이 개최하여 왔습니다. 2015년부터는 '공익변호사모임' 주최로 장을 넓혀 공익변호사를 주제로 한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는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변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공익변호사들이 많이 늘어나 그 수가 120여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2020년에도 새로이 공변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들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공변들도 서로 만나지 못해 관계를 유지하고, 활동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는 일상의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0월초 '공변 잇수다' 온라인 행사를 열어 서로의 근황을 확인하고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2020년 10월말에는 조심스럽게 공변한마당 행사를 열어 코로나19시대에서 공익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공변 라운드테이블, 공변 잇수다, 공변 한마당

2020. 9. 9.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_ 공변이 들려주는 '라테'이야기

2020. 10. 4. 공변잇수다 온라인 행사 진행

2020. 10. 30. 공변 한마당 행사 진행

공감이 걸어온 길

2004

아름다운재단 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활동 시작
제1회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 사업 시작
이주노동자,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 성매매피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변률 지원

2005

시각장애인 지하철 추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장애아동 보험가입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국제결혼 중개 구조 실태 - 베트남, 필리핀 현지조사

2006

성·인종차별 국제결혼 광고대응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버마 출신 민주화 활동가의 난민 자격 취득을 위한 행정소송 승소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 제20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상 수상

2007

비닐하우스촌 거주민 실태조사 및 법률상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토론, 공청회 발제 등 입법 활동
필리핀 카톨릭 추기경 수여 감사패 수상,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수여 감사패 수상

2008

스토킹 피해 여군장교의 항명죄에 대한 변론 무죄 선고
국제심포지엄 '로스쿨과 공익인권법 : 전망과 모색' 개최
법조협회가 선정하는 제2회 사회봉사단체 우수단체 선정

2009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개최 및 법안 발의 등 입법 활동
지역주민의 반발로 노숙인 쉼터 설치 신고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
용산 화재 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2010

영화 '친구사이'의 동성애 표현을 이유로 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취소 소송 승소
표현의 자유를 위한 국제인권 네트워크 구성
일가재단 주최 '청년 일가상' 수상

2011

유엔난민인권규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난민법 제정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제정
법조언론인 수여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2012

알바 청소년·요양 보호사의 부당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소송 지원 및 입법 활동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법 연구회' 구성 및 연구 활동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 대한민국 심의 관련 NGO 대응 활동

2013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
필리핀 진출 한국 기업 인권 감시 실태 조사
공감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2014

제1회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사업 실시, 제1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기획
세월호 참사 - 유가족 지원을 위한 변호사 파견, 사망한 민간 잠수사와 기간제 교사를 위한 법률 지원
아산 사회복지재단 '아산상-재능나눔부분' 수상

2015

사망한 압구정 아파트 경비원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아파트 경비원 인권 옹호 활동
정신병원 감금 피해자 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 활동
제19회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수상

2016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 헌법 위헌제정 신청 - 헌법불합치 결정
이주여성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 조사
장애청소년 경찰위법수사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2017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 승소(1심)
삼표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복직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 및 법제 개선

2018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친족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고소대리 사건 항소심 가해자 유죄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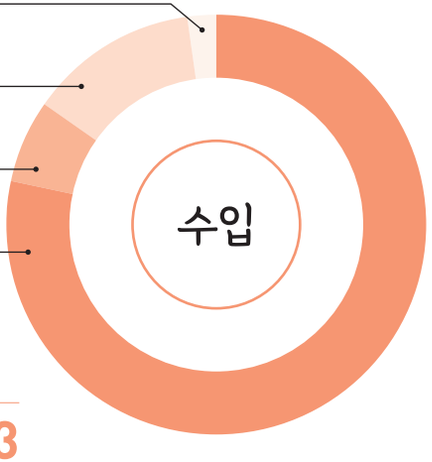
2019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국정원 여직원 정년 차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시정사건 승소

2020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故최인기님 사건 항소심 승소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
코로나19 대응 – 장애, 취약노동, 이주민, 빈곤과 복지, 재난 – 법률지원 활동
쌍용차 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을 위한 법률 지원

공감 살림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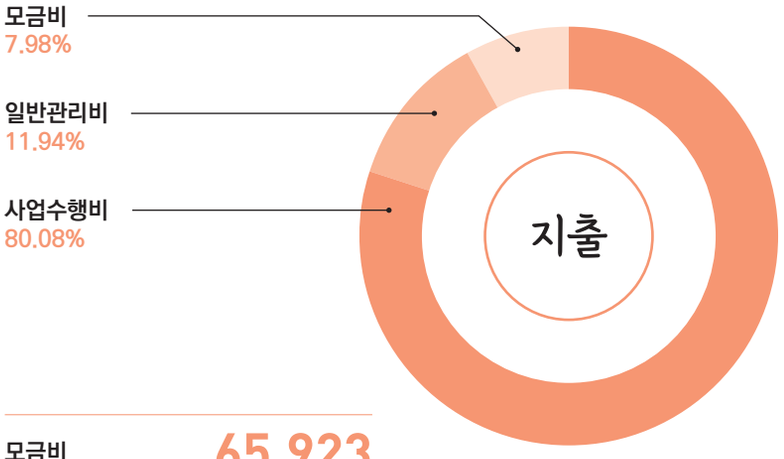
이자 및 기타	23,823
기업 및 단체	138,323
로펌기부	68,770
개인기부	847,839

단위 : 천원

합계	1,078,755

수입 항목에서 '이자 및 기타'수입은 무엇인가요?
예금이자와 인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 항목에서 인건비 비중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감 변호사의 활동 = 공감의 사업'입니다. 공감은 법률지원활동에 대한 수임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업 공익변호사 활동을 위한 인건비는 공감 고유의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모금비	65,923
일반관리비	98,570
사업수행비	661,110

단위 : 천원

합계	825,603

모금비	
인건비	38,331
사회보험료	3,267
시설관리비	1,385
도서인쇄비/소모품비	12,357
기타	10,583
소계	65,923

일반관리비	
인건비	76,600
사회보험료	5,576
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	3,577
시설관리비	2,370
홍보비	7,254
도서인쇄비/소모품비	713
기타	2,480
소계	98,570

사업수행비	
인건비	473,598
사회보험료	46,770
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	80
시설관리비	13,904
공익변호사자립지원사업비	80,000
법률교육비	158
법률지원비	2,380
소송지원비	12,997
교육중개비	9,984
연구조사비	12,124
인권법캠프비	7,455
포럼비	80
도서인쇄비/소모품비	998
기타	582
소계	661,110

2020 공감 목소리

장애인활동법 5조2호 위헌제청사건 헌재 공개변론

복지부는 예산이 많이 든다거나 다른 노인성질환자와의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 해당되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복지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있고, 그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은 받아주어야 합니다. 제청신청인도 다른 중증장애인들처럼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친구도 만나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석양을 보러 바다에 갈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염형국 변호사

여성에 대해 불안정 고용 강제하는 악순환을 끊어라

본 사건의 본질이 성별에 근거한 차별임이 제대로 지적될 때, 여성의 노동이 저평가 되어 불안정 고용형태로 집중되고, 불안정 고용형태를 여성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백소윤 변호사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제기

박영아 변호사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적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나, 권리가 덜 보장되어도 된다고 보는 것은 인종차별의 가장 전형적 형태이지만,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변경의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도입제도라는 허울에 가려져 그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21대 국회가 응답해야

장서연 변호사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심플하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행정서비스나 사법절차에서, 상업시설 등을 이용할 때 누구나 부당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차별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5년 마다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상식적인 내용을 반대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법 제정의 필요성, 정당성을 판단할 때, 그 법안을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판단이 쉬워질 때가 있다.

평등열차에 탄 사람들

지하철 단차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항소 제기

조미연 변호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필요의 최소한이나 임시방편이 아닌, 장애인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돼야 합니다. '평등 열차에 탄 사람들'에 법원 또한 합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등'을 위한 외침에 법정 안팎의 판단이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활동

박영아 변호사

사고, 질병, 노화 등 사람의 생애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은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2020 공감 목소리

백소윤 변호사

혐오인 듯 혐오 아닌 혐오 같은 것

국제결혼중개업 온라인 광고 규제가 필요하다

결국 무엇이 왜 차별이고, 어떻게 혐오가 되는가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대해 겨우 알아차리곤 합니다. 정부 차원의 꾸준하고 꼼꼼한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겠습니다. 더 나아가, 광고의 존재 필요성 자체를 의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박예안 변호사

불확실함의 시대, 우리가 보호해야 할 권리

고통과 슬픔에 대한 절댓값의 기준은 헤아리기 어렵겠지만 고통이 할퀸 자리는 사회의 가장자리로 갈수록 더 깊고 진한 듯하다.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의 약한 곳이 어디인지를 지나치리만큼 고해상도로 보여주었으며, 공포가 다가올 때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의 권리가 가장 먼저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뚜렷이 각인되었다.

멈추자 제대로 보이는 공감의 활동들

김지림 변호사

한 번도 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제도의 수혜자가 되고서야,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러한 운동에 함께 해 온 공감의 활동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아직 쟁취하지 못한 권리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난민, 이주 노동자, 성소수자, 감염인, 여성 - 당장은 나의 상황과 무관해 보이지만, 이렇게 우리 사회의 모든 소수자의 권리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다보면 후에 내가 또 어떤 소수자의 모습이 되던 나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황필규 변호사

코로나19와 인권 :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은 당연히 대두된다. 오랜 기간 어렵게 쌓아 온 인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얼떨결에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상황이 급박하더라도 지켜야하는 다양한 가치들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치열한 과정을 통해 그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 개별 조치들이 비례의 원칙의 부합하는지, 관련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다른 덜 제한적인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윤지영 변호사

공항이 멈춘 후, 쫓겨난 사람들

공항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직원들은 비정규직이다. 티켓팅을 하거나 라운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용자는 백이면 백 파견업체다. 코로나19로 비행기가 멈췄을 때 가장 먼저 쫓겨난 사람도 바로 파견 노동자다. 항공사는 파견업체와 맺은 계약을 해지했고, 파견업체는 계약 해지를 이유로 파견 노동자들을 내쫓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노동 정책, 고용유지지원금도 이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파견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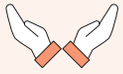
윤지영 변호사

청주방송 故 이재학PD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화려한 방송의 이면에는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임금,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이 존재합니다. 노동력 착취로 제작되는 방송은 좋은 방송일 수 없습니다. 방송사도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방송사가 사회의 나침반이라는 역할에 부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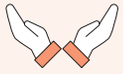
기부회원



가정준 강건우 강경두 강경희 강규영 강균하 강기목 강기영 강기욱 강기탁 강기현 강나현 강동환
강동흠 강두한 강미리 강미선 강미원 강민우 강민정 강방권 강봉수 강서영 강서영 강선화 강성대
강성식 강성원 강성일 강세라 강세희 강수경 강수정 강순이 강승수 강승연 강신섭 강신영 강신욱
강연성 강영규 강영준 강용현 강윤아 강윤창 강윤희 강율리 강은계 강은영 강은옥 강지아 강재상
강재영 강정숙 강정아 강정애 강정옥 강정은 강준모 강지영 강지용 강진영 강 찬 강태성 강태호
강현규 강현정 강현철 강환이 강효리 강희철 고건덕 고경란 고나무 고동선 고동희 고병원, 조현지
고석필 고성민 고세훈 고슬옹 고연금 고영란 고원용 고원형 고은아 고진욱 고찬욱 고태헌 고태호
고학수 고한나 고희경 공경제 공두현 공민석 공윤선 곽경란 곽경민 곽노길 곽동국 곽서윤 곽성자
곽시은 곽예람 곽우섭 곽원석 곽은비 곽인찬 곽현설 구금회 구나영 구성원 구수현 구슬기 구영운
구윤호 구인호 구자은 구자창 구현주 구혜진 국주영은 권경엽 권기섭 권기현 권기호 권대현 권명보
권미영 권배주 권보미 권석현 권세복 권영옥 권오곤 권오민 권오직 권용선 권용숙 권웅기 권은정
권이선 권 일 권 일 권정순 권준율 권준희 권지희 권철옹 권태섭 권태윤 권태형 권현준 권혜은
권혜진 권 회 권효선 금영은 기우용 길은수 김가연 김경래 김경림 김경미 김경미 김경민 김경선
김경아 김경연 김경연 김경옥 김경준 김경진 김경태 김계봉 김고운 김관철 김광길 김광래 김광배
김광숙 김광영 김광욱 김광호 김교신 김구열 김권회 김권희 김규미 김규식 김기권 김기남 김기덕
김기연 김기영 김나경 김나라 김나연 김나원 김난연 김남희 김다영 김다형 김다흰 김대중 김덕여
김도영 김도원 김도진 김도현 김도형 김도희 김도희 김동건 김동관 김동연 김동욱 김동율 김동한
김동현 김동현 김동휘 김두식 김라경 김락현 김래니 김루아 김 린 김명수 김명숙 김명원 김명준
김명호 김명희 김명희 김목홍 김미경 김미라 김미선 김미소 김미연 김미연 김미영 김미영 김미영
김미희 김민관 김민국 김민석 김민성 김민아 김민영 김민욱 김민재 김민정 김민정 김민조 김민지
김민철 김민철 김범준 김범진 김병수 김병오 김병욱 김병인 김보영 김복기 김봉진 김사랑 김상률
김상미 김상민 김상열 김상은 김상일 김상준 김상준 김상헌 김샛별 김서현 김석진 김석현 김선자
김선진 김선희 김성경 김성길 김성수 김성은 김성일 김성태 김성호 김성호 김성호 김성환 김성효
김성훈 김성훈 김성희 김세명 김세정 김세진 김세현 김소연 김소연 김소영 김솔아 김솔지 김수미
김수민 김수빈 김수열 김수용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진
김수현 김수현 김수호 김숙희 김순자 김순정 김순주 김순진 김승아 김승진 김승현 김승현 김승현
김승현 김시내 김시은 김아름 김아영 김유성 김애진 김양희 김연석 김연정 김연주 김연지 김영경
김영덕 김영란 김영민 김영선 김영수 김영순 김영옥 김영욱 김영유 김영은 김영주 김영준 김영진
김영진 김영현 김영희 김예린 김예영 김예원 김예정 김옥희 김완모 김용득 김용만 김용비 김용우
김용진 김용진 김용철 김용희 김우빈 김우연 김우중 김웅열 김원규 김원배 김원천 김유리 김유림
김유성 김유성 김유진 김윤선 김윤아 김윤정 김윤주 김윤진 김윤희 김은숙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혜 김이랑 김이석 김이슬 김이현 김인석 김인숙 김인택 김재관 김재민 김재승 김재원 김재원
김재원 김재종 김재춘 김재춘 김재현 김재환 김재훈 김재훈 김정근 김정남 김정란 김정린 김정민
김정민 김정수 김정순 김정아 김정안 김정예 김정은 김정익 김정일 김정주 김정진 김정태 김정학
김정혜 김정화 김정환 김정희 김정희 김제승 김조헌 김종록 김종민 김종보 김종서 김종순 김종욱
김종일 김종철 김종하 김종현 김종현 김종휘 김좌진 김주동 김주미 김주영 김주옥 김준석 김준연
김준영 김준우 김준태 김준혜 김지선 김지아 김지양 김지영 김지완 김지원 김지윤 김지은 김지인
김지향 김지형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효 김지훈 김지훈 김 진 김진국 김진석 김진아 김진아
김진영 김진영 김진옥 김진옥 김진우 김진이 김찬호 김창조 김창호 김창환 김창환 김채린 김채환
김철민 김청송 김춘수 김충진 김태성 김태양 김태연 김태욱 김태현 김태현 김태형 김포그니 김하영
김학자 김한규 김한규 김한길 김한석 김해성 김해정 김현경 김현미 김현미 김현수 김현수 김현아
김현영 김현우 김현이 김현자 김현정 김현진 김현해 김형동 김형로 김형배 김형연 김형옥 김형우
김혜란 김혜림 김혜선 김혜숙 김혜영 김혜인 김혜정 김호성 김호세아 김호중 김호진 김호철 김홍국
김홍율 김화랑 김화령 김화영 김환생 김회연 김효국 김효권 김효민 김효숙 김효영 김효준 김효진
김효진 김효진 김훈식 김희경 김희경 김희수 김희수 김희숙 김희연 김희정 김희주 나승철 나은식
나은지 남경호 남광열 남기연 남기철 남병영 남승한 남연진 남영애 남유정 남윤미 남정원 남직수
남찬섭 노경현 노경희 노귀선 노명호 노병권 노성철 노성현 노수현 노승희 노연희 노영주 노준호
노준호 노창호 노현국 노현웅 노혜련 노희선 노희정 도재형 라홍석 류경은 류다솔 류 란 류명희
류민희 류선호 류신환 류연철 류영재 류원호 류정선 류정아 류제성 류준세 류현진 류혜정 류호성
류희원 마 순 맹남주 명종진 명한석 모광희 목영준 문경민 문경순 문규환 문기돈 문미란 문병옥
문선영 문성원 문연진 문영선 문영화 문유민 문윤경 문 용 문준영 문준혁 문지석 문지은 문흥안
민경홍 민동섭 민선영 민예은 민유나 민창욱 민한기 민혜정 박가현 박갑주 박경배 박경서 박경신
박경용 박경운 박경웅 박경주 박경준 박경철 박귀천 박규도 박 근 박금주 박기례 박기영 박기출
박기현 박노민 박노수 박대협 박동숙 박래형 박명희 박미나 박미희 박민욱 박병규 박병우 박병조
박병준 박병한 박봉일 박상배 박상욱 박상윤 박상진 박서진 박서진 박서현 박선아 박선영 박선영
박선진 박선희 박선희 박성구 박성영 박성욱 박성희 박세웅 박세준 박세진 박소연 박소연 박소영
박소영 박송이 박수민 박수연 박수영 박수정 박수진 박수진 박수찬 박수현 박숙미 박순덕 박순주
박시우 박시환 박신애 박신영 박아롱 박연수 박연희 박영립 박영수 박영숙 박영희 박예안 박용대
박용식 박용찬 박우진 박원종 박유리 박윤근 박윤숙 박윤정 박은경 박은경 박은영 박은영 박은정
박은정 박은주 박은하 박은혜 박이정 박인석 박인희 박일환 박재성 박재우 박재홍 박재희 박정교
박정명 박정민 박정숙 박정신 박정옥 박정원 박정은 박정헌 박정현 박정훈 박종록 박종문 박종욱
박종혁 박종환 박종흔 박주민 박주언 박주원 박주희 박준기 박준석 박중원 박지선 박지영 박지영
박지현 박지호 박지환 박지훈 박 진 박진동 박진석 박진우 박진호 박진호 박찬우 박철완 박춘희
박충식 박평아 박하언 박학수 박한희 박해영 박현규 박현애 박현주 박형수 박혜경 박혜란 박호근
박호황 박화숙 박효원 박효진 반미영 반예을 반재용 방경희 방서은 방승빈 방연주 배대용 배도준
배삼희 배상영 배영근 배영희 배유미 배은희 배정호 배지영 배진수 배채영 배현아 배혜선 백경미
백나라 백도라지 백문기 백 민 백범석 백성진 백성현 백승영 백승희 백우영 백인욱 백일하 백종근
백종수 백지예 백진영 범주환 변달석 변동재 변수양 변영선 변자영 변종석 변진호 변혜연 부장원
부지환 서강석 서강일 서기호 서동운 서미애 서민경 서민근 서범욱 서상범 서상원 서석우 서선영
서순아 서승균 서승미 서승옥 서아인 서영국 서영지 서유진 서은영 서은혜 서재길 서정현 서정현
서정희 서지애 서지은 서지화 서진환 서창효 서채완 서해정 서현선 서호성 서희원 석근배 선정규
선우아정 설승은 성갑선 성계숙 성군희 성기옥 성덕형 성순모 성승현 성유학 성정모 성준근 성창근
성창익 성하은 소라미 소민호 소순무 소영현 소윤민 소재욱 소지민 손도희 손명호 손민아 손병욱
손봉기 손승민 손승현 손아람 손정유 손충모 손필숙 손학렬 송경근 송기영 송다솜 송다영 송동현
송명숙 송명훈 송미지 송민경 송민수 송상교 송상윤 송수경 송시현 송아람 송영훈 송오섭 송윤원
송인혁 송정근 송주연 송주희 송준현 송지우 송지현 송지현 송진선 송찬섭 송창영 송창희 송치영
송태협 송하경 송해구 송현정 신가영 신건호 신경숙 신경숙 신고운 신국식 신 권 신대연 신대희
신동석 신동수 신동화 신명근 신미경 신병주 신상은 신선경 신성식 신성호 신소현 신수경 신승민
신승훈 신아영 신영욱 신원기 신유림 신유재 신윤진 신은숙 신은진 신정림 신종균 신주영 신주헌
신진화 신창용 신한나 신현준 신혜성 신혜영 신혜원 신화경 신훈민 심광택 심나리 심석태 심성우
심재철 심제원 심지연 심지영 심희정 안경환 안기순 안다연 안만혁 안명주 안미경 안병국 안병학
안상균 안상일 안선주 안성수 안성식 안소연 안수균 안순선 안승택 안시야 안시헌 안영진 안영춘
안영환 안예하 안오성 안유진 안윤교 안은지 안인걸 안정원 안지해 안진걸 안진우 안한진 안혜령
안혜림 안혜정 안효광 안희철 양가을 양라희 양서현 양선미 양선우 양승미 양영모 양영화 양옥수
양인수 양재선 양정숙 양정임 양정하 양준희 양지연 양지원 양지은 양창영 양현아 양홍석 양희모
양희준 어정원 엄규숙 엄기섭 엄혜진 여운국 여지은 연제헌 염경용 염경주 염규상 염신연 염주민
염찬우 염찬주 염흥섭 오기환 오동환 오미숙 오미현 오병두 오상조 오상현 오석연 오석제 오성심
오성열 오성택 오세정 오수정 오승민 오연희 오영신 오영아 오예지 오유미 오유빈 오윤석 오은정
오은지 오응철 오이석 오재림 오재욱 오지원 오지은 오충진 오한준 오형석 오혜영 온채희 왕미양
왕진희 용성진 우동형 우 람 우은주 우정열 원명진 원민경 원영진 원유호 위아래 위은진 유금녀
유덕기 유동철 유동훈 유록수 유선평 유성애 유순희 유승룡 유승민 유승민 유시화 유연실 유영기

함께하는 사람들

기부회원



유영일 유영훈 유용덕 유 욱 유 원 유원규 유원정 유인선 유재광 유재원 유재철 유정령 유정인
유정화 유정훈 유지현 유지호 유진선 유채빈 유혜연 유혜정 유화정 유효영 육태순 윤규상 윤기열
윤나라 윤덕로 윤명순 윤미영 윤민화 윤병우 윤병우 윤석준 윤석희 윤선목 윤선주 윤설아 윤성민
윤성수 윤성운 윤성철 윤세민 윤세종 윤소정 윤승희 윤신승 윤여일 윤영미 윤영순 윤용섭 윤용호
윤원근 윤유선 윤은정 윤자영 윤재실 윤재윤 윤재훈 윤정숙 윤정연 윤정원 윤정향 윤지숙 윤지현
윤진수 윤진호 윤해림 윤현우 윤혜숙 윤혜영 윤홍식 은종군 은 탁 은현호 이가연 이가혁 이가현
이강원 이경미 이경민 이경아 이경율 이경재 이경준 이경희 이계성 이계수 이계언 이계현 이 구
이권열 이규범 이금화 이기선 이기연 이기화 이길재 이나래 이난영 이다영 이다혜 이달별 이대근
이동근 이동연 이동주 이동준 이동혁 이두진 이명진 이문이 이문희 이미란 이미숙 이미지 이민순
이민영 이민재 이민주 이범주 이범휘 이병권 이병래 이병문 이병민 이병주 이보람 이보완 이보윤
이복현 이본영 이봉원 이봉재 이봉준 이봉현 이산희 이상국 이상민 이상민 이상봉 이상석 이상석
이상수 이상아 이상언 이상원 이상중 이상필 이상화 이상희 이상희 이서원 이서준 이서진 이석범
이선기 이선민 이선순 이선아 이선응 이선임 이선형 이선희 이성원 이성은 이성재 이성진 이성호
이세리 이세린 이세영 이세영 이소담 이소아 이소연 이소영 이소운 이 송 이송준 이수민 이수연
이수연 이수영 이수진 이수진 이수현 이수현 이수희 이숙현 이순혁 이슬비 이슬아 이승수 이승용
이승용 이승우 이승욱 이승원 이승원 이승한 이승한 이승헌 이승현 이승훈 이심가은 이아랑 이예린
이안소영 이여름 이연경 이연순 이연정 이연희 이영근 이영래 이영선 이영옥 이영주 이영호 이영희
이예지 이예한 이예현 이예화 이용구 이용세 이용우 이용욱 이용표 이우승 이우진 이우환 이욱범
이원규 이원재 이유영 이유준 이유지 이유진 이유철 이윤구 이윤성 이윤정 이윤정 이윤주 이은주
이은숙 이은숙 이은영 이은영 이은영 이은일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지 이은희 이의석
이의진 이인규 이인복 이인숙 이 일 이임용 이장호 이재명 이재명 이재성 이재승 이재승 이재욱
이재한 이재형 이재훈 이정국 이정민 이정민 이정민 이정복 이정애 이정언 이정은 이정이 이정인
이정진 이정호 이정환 이제철 이종린 이종미 이종수 이종식 이종희 이주언 이주연 이주영 이주영
이주창 이주한 이준범 이준상 이준석 이준석 이준수 이준일 이준환 이지나 이지은 이지행 이지현
이지혜 이지환 이지환 이진권 이진만 이진선 이진숙 이진숙 이진우 이진우 이진주 이찬진 이찬호
이창국 이창석 이창형 이채식 이채원 이채원 이채현 이철기 이철주 이총희 이춘재 이탄희 이태정
이태호 이태훈 이태흥 이하정 이하정 이한본 이한솔 이해옥 이해원 이향임 이향재 이헌주 이혁재
이현미 이현수 이현숙 이현승 이현종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진 이형균 이형근 이형근
이형미 이형석 이형자 이형주 이형직 이혜리 이혜영 이혜영 이혜온 이혜욱 이혜원 이혜윤 이혜정
이혜정 이 호 이호식 이호원 이호인 이호재 이호정 이호중 이호철 이호철 이홍석 이화영 이화영
이화정 이화준 이황희 이효건 이효경 이효정 이훈희 이희경 이희경 이희만 이희선 이희섭 이희순
이희승 이희승 이희정 이희정 이희찬 임귀숙 임규원 임남규 임대빈 임대우 임대원 임미진 임민수
임봉수 임상옥 임선영 임선영 임선주 임성룡 임성순 임세와 임수경 임수진 임수희 임영미 임영효
임예지 임용규 임원범 임은영 임익현 임자운 임재만 임재성 임정은 임정하 임주연 임진홍 임찬석
임창현 임채민 임통일 임현묵 임혜원 장 건 장경욱 장교식 장낙원 장달리 장도중 장명경 장미희
장민주 장민환 장병호 장보람 장부용 장석우 장선영 장성민 장세명 장순실 장승희 장영석 장예림
장옥희 장 원 장원택 장유식 장윤경 장윤석 장윤숙 장윤정 장윤주 장윤주 장윤호 장은경 장은영
장은주 장재영 장정환 장지숙 장철익 장 품 장현진 장혜민 장 환 장효정 장 훈 장희국 전경태
전명호 전민성 전민식 전병규 전상윤 전선희 전성관 전성지 전수안 전아람 전영록 전용범 전우정
전원진 전은경 전은배 전재우 전정현 전지성 전찬서 전창률 전화승 전효숙 정가영 정경미 정경민
정계현 정고은 정광석 정광임 정광현 정규빈 정규헌 정낙식 정남순 정다정 정다훈 정대일 정대헌

정도영 정명준 정미나 정미현 정미화 정민경 정민영 정병민 정병삼 정병수 정상교 정서희 정석종
정선명 정성순 정성용 정성태 정성호 정성훈 정성훈 정세영 정세진 정소망 정소연 정소연 정소연
정수미 정수정 정순문 정순형 정승혜 정아름 정아선 정연선 정연욱 정연주 정영선 정영선 정영훈
정옥엽 정용승 정용운 정욱도 정원락 정원진 정윤선 정윤하 정은령 정은영 정은정 정이명화 정인흥
정일연 정일용 정재건 정재욱 정재욱 정재필 정재헌 정재현 정정국 정정숙 정정진 정정화 정정환
정정훈 정제훈 정종호 정주형 정준학 정중열 정지수 정지연 정지웅 정지하 정지훈 정 진 정 진
정진규 정진숙 정진화 정창교 정 철 정춘석 정해송 정행주 정형모 정혜련 정혜민 정혜선 정혜영
정혜진 정호엽 정호진 정홍조 정화숙 정화인 정환엽 정희경 정희정 조건희 조경주 조광희 조기연
조남혜 조대연 조덕현 조동선 조동완 조동용 조문성 조문숙 조범석 조병규 조석필 조선영 조세현
조수민 조수진 조숙현 조순옥 조아라 조연민 조연희 조영관 조영린 조영선 조영신 조영언 조영옥
조영현 조영희 조용기 조용수 조용하 조우람 조우영 조우현 조 욱 조원희 조유경 조은서 조은진
조은진 조익섭 조장천 조재령 조정은 조정현 조정현 조주영 조준호 조초희 조하영 조한결 조한진
조현미 조현복 조현재 조현주 조형순 조혜련 조혜영 조혜인 조혜정 조혜주 조홍택 조효민 조흥식
주경숙 주기영 주선영 주선하 주숙희 주신영 주영삼 주영진 주지원 주형진 지 박 지선경 지성호
진근태 진다희 진양화 진형혜 차강진 차규근 차미령 차민형 차선주 차승호 차영숙 차영옥 차용선
차정희 차지훈 차태진 차한성 차현미 차혜령 채성희 채양희 채윤경 채정석 채태아 천경송 천만우
천정훈 최가영 최강용 최강욱 최 결 최경숙 최경자 최계영 최광기 최광훈 최규진 최기림 최기선
최길임 최다빈 최달옹 최대호 최대훈 최도영 최문순 최미영 최미영 최민경 최민량 최민형 최병규
최병선 최병엽 최보라 최상미 최서연 최서연 최서희 최선주 최성규 최성보 최성일 최세현 최소연
최승철 최승현 최아람 최영규 최영호 최영희 최용범 최용직 최용혁 최용호 최웅영 최원근 최 유
최유남 최유리 최유진 최윤경 최윤수 최윤정 최윤혁 최윤희 최은배 최은숙 최은주 최의실 최인선
최재신 최재홍 최정규 최정식 최정아 최정옥 최정우 최정은 최정은 최정인 최정임 최정환 최종선
최종환 최준근 최준성 최준우 최준혁 최지경 최지선 최지영 최지은 최지현 최진영 최진영 최창석
최창호 최철기 최청일 최혁재 최현오 최현욱 최현진 최형석 최형식 최호정 최효재 최희정 최희정
최희정 추은정 추은혜 추혜윤 추혜진 탁선호 표슬비 하나영 하성우 하양진 하인숙 하정영 하주희
하준영 하지석 하진경 하혜빈 하희봉 한경수 한국염 한금섭 한기영 한명득 한민용 한병준 한보경
한상만 한상미 한상호 한상희 한성민 한수경 한승석 한승표 한아인 한애라 한연규 한영동 한영주
한원횡 한은희 한이경 한이계영 한재준 한재호 한종섭 한중호 한지수 한지연 한창견 한창남 한창완
한창훈 한철웅 한태윤 한학수 한화숙 한효성 한효은 함동호 함영선 함지혜 허나눔 허누리 허세진
허수희 허오영숙 허인회 허 정 허정집 허치림 허태정 현다연 현지원 현지현 형두호 호승진 홍경선
홍경화 홍금순 홍두의 홍 민 홍봉표 홍성수 홍성진 홍수정 홍수희 홍순진 홍승기 홍승혜 홍아현
홍영재 홍완희 홍우람 홍원표 홍유미 홍윤선 홍은기 홍정기 홍정아 홍정훈 홍주희 홍지수 홍지은
홍진영 홍진표 홍초롱 홍혜린 홍혜선 황가혜 황규인 황매화 황미정 황보인구 황선주 황성현 황승옥
황승희 황신애 황연재 황영명 황예랑 황용기 황원규 황은경 황의홍 황인이 황재호 황준협 황지택
황지현 황지현 황진도 황채주 황필규 황 현 황현이 황현일 황현정 황혜신 황혜진 황호연

Eunice Kyonghee Kim Jeongtaek Seo Joomi Patricia Goedde Hyun-Soo Lim

(재)바보의나눔 (재)성심수도회 (재)화우공익재단 (주)공달학원 (주)미래에너지 (주)사이로직 (주)삼구아이앤씨
주)센티널테크놀로지 (주)스페이스2.0 (주)아레테투자 (주)이레테스트 SK엠창주유소 UNHCR 목화회_일리노이
법무법인 다온 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 세연 법무법인 위공 법무법인 피터앤김 법무법인 한누리 법무법인 화연
법무법인(유한) 광장 법무법인(유한) 지평 법무법인L.K.B&Partners 법무법인승인 법무법인태율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박숙란 법률사무소 변호사조윤성법률사무소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협회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사단법인 한국도시연구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성균관한의원 세탁전문점향기 시너지팩 에이캐드 에코네트워크(주) 이영중모임 일리노이 인권연구소 '창'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안법무사합동사무소 쿼드자산운용(주) 태통정보통신 하이꽈 베트남어
한국난독증협회 호영카 마스타

함께하는 사람들

이사회

공감은 빈곤과 핍박, 차별과 혐오로
고통 받는 이웃에게 백신 같은 존재이고자 합니다.

전수안
이사장

눈빛으로 공감하였습니다.

문영화
이사

데이빗 워터스
이사

공감과 함께 모두 즐길 수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를 만듭시다!

김유니스
이사

'공감'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공감'과 함께 해주세요!!

공감이 있어 행복합니다.

존리
이사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 쪽 문이 닫히면 거기 다른 쪽 문이 열린다.
코로나로 어려웠던 지난해
올해는 희망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종석
감사

공감은 다른 사람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느끼는 신비한 경험이다.

홍진표
이사

한상희
이사

판데믹 시대를 이겨내는 공감의 힘

변영선
감사

백신 같은 '공감'이 있어서 바이러스도 걱정 없다!

공감은 약자의 공감입니다.
앞에도 뒤에도 공감이 있겠습니다.

신경숙
이사

잘 보이지 않아도 꼭 필요한 두 가지,
공기 그리고 공감

윤재윤
이사

공감이 있기에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고
보다 정의로운 따뜻한 사회로 다가가게 됩니다.
공감을 위하여!

김영준
이사

변연식
이사

따뜻하게 손 잡아주며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공감의 친구들...
지치고 다친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구성원

김지림

모두가 안전해야 나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한 해였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오늘도 한 발짝

박영아

평가는 지난 일에 대한 것,
앞으로의 일은 지레 하는 평가가 아닌
가늠과 계획으로.

모든 이들에게 저마다의 힘든 날,
개인 날이 있겠지요.
그러니 우리 오늘, 서로에게 친절하면 좋겠습니다.

박예안

백소윤

온다, 봄이.
그런 겨울이 있기는 했냐는 듯 서럽게.
당신의 겨울이 너무 오래 머물지 않게
봄을 당기는 오늘을 함께 산다.

신옥미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주영

염형국

사람에게 상처받지만,
또 사람에게 위로받는다.
문제도 답도 결국 사람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든든한 변호사 친구이기를,
늘 염원합니다.

윤지영

임기화

건강하게, 오래오래

가족과 친구를 만나고, 영화를 보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낀 시간들이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더라도 그 낯선 감각을 잊지 않고
일상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서연

조미연

저마다의 평범한 일상에 공감하며
우리들의 길을 잇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필규

만만한 변호사로서, 만만치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저와 공감, 그리고
여러분이 늘 그곳에 함께할 수 있기를.

공감 나눔밥상

만나지 않아도 만날 수 있어요!

2020년, 갑자기 찾아온 언택트의 시대는 만남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주었습니다.
12월 15일, 공감이 준비한 온라인 나눔밥상도 그런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한 온라인 나눔밥상에서 공감 구성원들과 11분의 기부회원이 만났습니다.
서로에 대한 소개, 공감의 활동, 공감에 대한 퀴즈, 기부회원님들의 공감에 대한 궁금한 것들.. 오프라인에서 진행했던 행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로 채워졌지만 더 큰 반응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조금은 어색했지만, 오히려 가까이 느껴진 1시간여의 시간은 서로에 대한 물음과 답으로 채워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소박한 만남의 시간에 함께해 주신 기부회원들께, 또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들로 기부회원들에 가까워지는 공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엔 정말 맛있는 밥 한 끼, 꼭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을 따라 흐르다가
어딘가에서 멈췄고 어딘가에 고였다.
콜센터, 물류센터, 정신병원, 요양병원... 그곳에 타인이 감염되어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서로 돌봐야했고 함께 일해야 했을 뿐이다.
바이러스와 마주치는 사람의 자리가 평평하지 않았다.
가장 취약한 곳에서 재난이 재생산된다.

미류, '우리는 서로를 책임질 수 있을까'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20
www.kpil.org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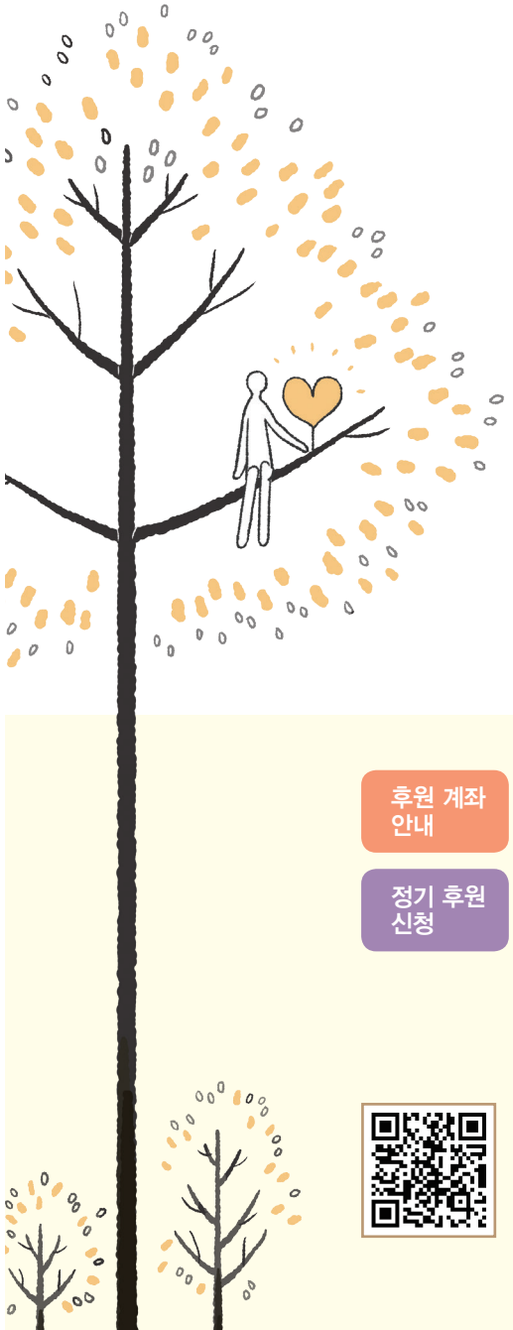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20 연간보고서

발행일 2021년 3월

발행인 전수안

발행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 (원서동, 북촌창우극장 3층)
TEL 02-3675-7740 FAX 02-3675-7742
www.kpil.org

디자인 동방기획
TEL 02-2277-036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공감은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장애인, 난민, 이주여성, 홈리스, 성소수자 등
세상 주변부에 선 사람들의 삶,
바로 그 자리에 뛰어가
법을 말하고 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공감은 희망을 그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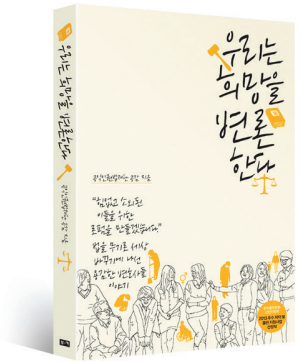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잠시 잃었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 희망을 응원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우리 이웃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 계좌 안내
하나은행 162-910015-36804
예금주 :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기 후원 신청
홈페이지 : www.kpil.org (CMS 납부 신청 가능)
이메일 : gonggam@gmail.com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공감에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시 비용 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1년 동안의 기부액을 합산하여 이듬해 1월 중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공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별도 발행도 가능합니다.
- 공감 기부회원께는 공감이 발행하는 연간보고서와 온라인 뉴스레터를 보내 드립니다.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음 / 2013년 12월 9일 발간 / 280쪽 / 14,000원

법의 새로운 사용법을 보여주는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이 책은 2004년도에 등장한 최초의 로펌 '공감'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현장의 생생한 에피소드와 함께 들려준다. 척박한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전하는 한편, 인권 사각지대를 만드는 법과 제도의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도 담겨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뜨겁게 앓고 고군분투하는 공감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희망의 기록'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공감
공익인권법재단

주소 03058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 (원서동, 북촌창우극장 3층)
전화 02. 3675. 7740 **팩스** 02. 3675. 7742
이메일 gonggam@gmail.com
홈페이지 **www.kpil.org**